



미국 뉴욕에 오픈한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은 현지 고객들(왼쪽)과 서울 논현동 본사로 이전한 잇츠한불 기술연구원 모습. K-뷰티 붐을 타고 승승장구하던 화장품 브랜드숍들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진제공 | 이니스프리·잇츠한불

고개숙인 뷰티 브랜드숍 “새 활로를 찾아라”

H&B 스토어와 경쟁·중사드보복 이중고 업계 톱5 업체들 2분기 매출이 매출 감소 미주·유럽 공략, 연구개발로 활로 모색

‘K-뷰티’ 붐을 타고 승승장구하던 화장품 브랜드숍(단일 브랜드 매장)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브랜드숍 톱5 업체들의 2분기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매출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의 경우 전년 동기과 비교해 28%나 줄어든 1535억원을 기록했다.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도 매출이 9.4% 감소한 1444억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미샤는 7.2% 감소한 100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토니모리는 2분기 매출이 무려 88.07%나 하락한 493억원에 머물렀고, 잇츠

스킨은 아예 영업이익이 15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브랜드숍의 매출이 이렇게 줄줄이 하락한 원인으로 우선 2012년 K뷰티 열풍 이후 신규 브랜드숍이 대거 생겨나면서 국내 시장 경쟁이 가열됐고, 브랜드가 노후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해진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올리브영이나 왓스 같은 H&B(헬스·뷰티) 스토어들이 공격적으로 유통망을 늘리면서 화장품 브랜드숍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외적으로는 역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 일명 ‘한한령’의 악영향이 매출 부진에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이니스프리와 토니모리, 뉴욕·독일서 새로운 시장 개척
브랜드숍 업계는 내외적으로 닦친 위기를 헤

쳐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먼저 중국 시장의 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 미주와 유럽 등 새로운 해외 시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미국 뉴욕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150종 이상의 미국 전용 상품과 900여 종에 달하는 제품을 내놓았다. 현지 고객의 다양한 피부 타입과 색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라온지에서는 뷰티와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클래스도 진행한다.

토니모리는 18일 독일 최대 유통 채널인 두글라스 450개 매장에 동시 입점한다. ‘팬더의 꿈’, ‘매지 푸드 바나나’ 등 인기제품부터 ‘더 촉촉 그린티 라인’, ‘순수예코 대나무 라인’ 등 기초 케어 라인까지 입점 품목도 다양하다. 기초 케어 라인의 경우 그린티, 대나무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성분은 내세웠다.

유상증자, 연구소 강화 등 내실을 기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에서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다. 에이블씨엔은 “유상증자로 확보된 금액과 사내 유보금을 투자해 보수적인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회사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잇츠한불은 충북 음성 기술연구원을 서울 논현동 본사로 이전했다. 그동안 상품개발 조직과의 협업 및 의사결정에 있어 물리적 거리로 제약이 있었는데 이전을 통해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하게 회사 측 설명이다.

뷰티 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진의 각종 요인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체들이 수출 다각화 등으로 활로를 찾고 브랜드 파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정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주간경제 11~15일

코스피지수	2386.07	▲	+26.99
코스닥지수	671.30	▲	+14.77
日 닛케이 지수	1만9909.50	▲	+363.73
중 상하이 종합	3353.62	▼	-22.80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4	▼	-0.02
환율 (원·달러)	1132.50	▼	-2.5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8280.58	▼	-412.05

지수는 15일 증가, 등락은 주간 집계.

오늘의 얼굴

조원태 위원장 “관광업 체질 개선해야”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관광업계가 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상의 3대 관광산업위원장을 맡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을 역설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준다”며 “체질 개선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업계에 있는 우리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진행 움직임에 대해 “노조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잘 될 것으로 본다”며 “파업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 돌풍...모바일 지각변동 신호탄

‘리니지’ 누르고 앱스토어서 매출 1위

모바일게임 시장에 지각변동의 신호탄이 울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4일 출시한 넥슨의 ‘엑스(사진)가 양대 모바일 마켓 매출 상위권에 나란히 올랐다. 엑스는 앱스토어에서 13일 ‘리니지2 레볼루션’과 ‘리니지M’ 등 리니지 시리즈를 모두 누르고 매출 1위에 올라 17일 현재까지 왕좌를 지키고 있다. 구글플레이에서도 정식 출시일인 14일 ‘리니지M’에 이어 2위에 올랐고, ‘리니지2 레볼루션’과 앞치랑뒤치랑 경쟁을 하고 있다. 17일 기준 3위에 랭크됐다.

엑스는 오픈월드에서 벌어지는 연합국 갈라노스와 신성제국 다르칸의 대립과 경쟁을 다룬 3D 모바일게임이다. 진영 간 치열한 필드 플레이어킬링(PK)과 분쟁전, 타진영 유저를 상대로 5대5 승부를 겨루는 ‘롤로세움’ 등의 콘텐츠가 흥행 요소다.

엑스의 흥행은 넥슨 모바일게임 사업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넥슨은 2015년



‘히트’로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였지만, 이후 흥행작을 내지 못했다. 넥슨이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흥행작이 절실한 상황에서 7월 ‘다크어벤저’가 흥행물꼬를 뜨고 이번 엑스로 방점을 찍었다. 넥슨은 출시를 기념해 26일까지 게임에 접속하면, ‘골드’, ‘영웅-공공 방어구 상자’, ‘승급석’, ‘루비’ 등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는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24일까지 퀘스트를 완료한 지역에 따라 ‘회귀~전설’ 등급 ‘정령석 상자’를 지급하는 ‘모험지역 클리어’ 이벤트도 연다. 김경민 기자 dionys@donga.com

레볼루션이 시장을 접수했다. ‘테라M’과 ‘블소 모바일’ 등 앞으로 등장할 기대작들도 모두 인기 PC온라인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엑스는 넥슨 레드가 개발한 전혀 새로운 콘텐츠로 향후 IP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넥슨은 출시를 기념해 26일까지 게임에 접속하면, ‘골드’, ‘영웅-공공 방어구 상자’, ‘승급석’, ‘루비’ 등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는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24일까지 퀘스트를 완료한 지역에 따라 ‘회귀~전설’ 등급 ‘정령석 상자’를 지급하는 ‘모험지역 클리어’ 이벤트도 연다. 김경민 기자 dionys@donga.com



‘가을에 빠진 테니스걸’

배우 김유정이 모델로 활약 중인 율라의 2017 가을 시즌 화보에서 성공 다가온 가을 분위기를 패션으로 연출했다. 화보에서 김유정은 캐주얼하게 변형된 율라 로고 티셔츠에 화려한 핑크빛 점퍼를 매치하는 센스있는 스포츠 패션을 선보였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율라

비즈 TALK TALK

- “중소 중견기업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 그들이 편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성수 신임 수출입은행장, 노조의 ‘출근 저지’로 임명 5일 만인 15일 지각 취임식을 가진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언하며)
- “베젤리스 디자인과 손에 맞는 크기 듀얼 카메라에 매력을 느껴 선택했다.” (새로 출시한 삼성 갤럭시 노트8의 KT 1호 개통자, 매장 앞에서 64시간을 기다린 끝에 첫 개통자가 된 소감을 밝히며)
- “전문성 부족”이란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 사퇴 결정.”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장관 후보자 지명 22일 만인 15일 자진 사퇴를 하면서 밝힌 입장문에서)

데이터 경제

언어별 한국 관련 검색 톱5 키워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을 궁금해할까.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키워드 트렌드 보고서’에서 2016년 한해 동안 사용언어별로 가장 인기 많은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영어는 ‘김치’, 중국어 간체는 ‘신춘’, 중국어 번체는 ‘DMZ’, 일본어는 ‘K-POP’, 독일어는 ‘김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태권도’, 그리고 러시아어는 ‘올케이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권에서는 2015년 대비 ‘평양’ 검색량이 3배 이상 증가하여 해외에서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1	김치	K-POP	신춘	김치	태권도	올케이팜
2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청계천	서울	K-POP	서울
3	서울	한국어	아침고요 수목원	비빔밥	김치	비빔밥
4	한국 영화	KTO	남산타워	부산	아티움	부산
5	연등회	한국 여행	남산공원	KTO	서울	KTO

마사회, 고용디딤돌 ‘지도 과정’ 수료식 개최



한국마사회는 9월15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고용디딤돌 ‘승마 지도 과정’ 수료식(사진)을 개최했다. 한국마사회 고용디딤돌 사업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 직업훈련을 통해 말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국마사회 인재교육원은 2017년 말산업 분야의 유망직종인 말

조련·승마지도·재활승마·말관리·유소년승마 지도 5개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2월부터 교육훈련을 실시 중이다.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2개월에서 7개월이다. 교육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된다.

필립스코리아, 경희대 무료 구강검진 지원



필립스코리아가 9월 한 달간 경희대 치과대학

과 협업을 무료 구강검진 봉사활동(사진)을 지원한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봄, 가을마다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구강검진 행사를 시행해왔다. 필립스코리아는 총 580만원 상당의 필립스 소니케어 음파치솔 200대를 후원하고 참가자에게 구강관리 교육도 제공한다. 또한 필립스 음파치솔을 활용해 치아 표면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와 잇몸선까지 깨끗하게 양치하는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정용운 기자

KT 기가와이어 미국에 첫 선

KT의 ‘기가 와이어’ 기술(사진)이 미국 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기가 와이어는 광케이블 없이 구리선만으로 최대 1Gbps의 인터넷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KT는 15일 미국 보스턴 시



하이버나인 홀에서 기가 와이어 개통식을 갖고, 보스턴 다운타운에 기가 와이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시범 구축한 기가 와이어는 우선 보스턴 다운타운 내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KT는 앞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국 내 다른 도시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과 스마트솔루션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